우암학원 창학 73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71 SINCE 1952

FELICE 승원 팰리체
승원건설그룹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1962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2월 22일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주암댐·동복댐 저수율 20% 아래로 ‘뚝’

광주 14년 만에 최악의 가뭄
5월부터 제한급수 불가피
시민 수돗물 20% 절약 운동
“절수형 변기 교체 강제” 의견도

최악의 가뭄을 맞고 있는 광주·전남에 오랜만에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렸지만, 광주시민의 식수원인 주암댐에 이어 동복댐 저수율마저 마(魔)의 20% 아래로 추락했다.

동복댐이 저수율을 10%대를 기록한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으로, 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오는 5월 말께부터 제한급수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광주시는 3급수인 영산강 물을 식수로 끌어쓰고 시민에게 생활 속 물 절약 실천을 호소하고 있지만, 더위가 본격화하고 물 사용량이 많은 봄 시즌이 겹침에 따라 제한급수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시적으로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시민 대상 절수변기 교체 등 절수기기 교체 사업, 다량 급수처 휴무 등 중·장기적 절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2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0시 기준 동복댐 저수율은 19.97%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5일 30% 아래로 내려간 뒤 96일 만에 20%선이 무너진 것이다. 동복댐 저수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그나마 12일 한때 광주 전역에 반가운 단비가 내리긴 했지만, 역대급 가뭄을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앞서 광주시민의 또 다른 식수원인 주암댐 저수율도 지난 5일 20% 아래로 떨어져 지난 11일 0시 현재 18.19%를 기록했다.

주암댐은 전남 11개 시·군, 광주 서·남·광산구 수돗물과 여수·광양 산단 공업용수를, 동복댐은 광주 동·북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광주시상수도 사업본부는 지금처럼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주암댐은 5월 말, 동복댐은 6월 말 고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수율이 7% 이하로 떨어지면 제한급수 대상이 되는 만큼 이르면 5월 내에 제한급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암댐과 동복댐의 저수율이 20% 아래로 떨어지며 광주시의 가뭄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모처럼만에 내린 비가 대지를 적신 12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 우산을 쓴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에서 마지막으로 제한 급수가 시행된 시기는 1992년 12월 21일부터 1993년 6월 1일까지 163일간 이었다.

광주시는 제한급수 시점을 늦추기 위해 수돗물 20% 절약을 목표로 수도계량기 수압 조절, 양치컵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양변기에 페트병 넣기 등 시민 생활 속 물 절약 실천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민이 하루 사용하는 45만t 중 최대 10만톤 안팎을 절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의 절수 운동에 따른 물 생산량 절감률은 1월 첫째 주 6.9%→2월 첫째 주 -2.4%→둘째 주 9.3% →셋째 주 4.7%→넷째 주 9.2%, 3월 첫째 주 9.1% 등으로 10%벽 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월 첫째 주는 되레 물 사용량이 늘기도 했다.

물 절약 캠페인이 6개월 넘게 장기화하면서, 시민의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일부에선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 없이 절수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절수형 변기 교체 사업 등을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존 가정용 변기(1회·12ℓ)를 절수형 변기(4~6ℓ)로 교체하자는 것인데, 시민 1명이 하루 8번 누른다고 가정했을 시 절수형 변기 교체만으로도 50~60ℓ 정도의 물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절수 수전 등 다양한 절수기기를 병행한다면 시민 1인당 생활 속에서 하루 100ℓ 안팎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광주시민(150만명) 전체에 단순 적용하면 매일 15만톤(1억5000만ℓ) 안팎의 물 사용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절수기기 사용만으로도, 광주시 전체 하루 물 사용량의 30% 이상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5~20㎜ 단비…해갈엔 역부족

여수 등 6개 시·군 한파주의보

유례없는 가뭄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에 최대 20㎜의 단비가 그친 뒤 13일부터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추위가 찾아온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2일 비가 그친 뒤 13일부터 14일까지 중국에서 남하한 북서쪽의 찬 공기가 유입됨에 따라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을 보일 것”으로 12일 예보했다.

12일 광주·전남에는 5~20㎜의 단비가 내렸지만, 가뭄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비가 내리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풍까지 동반돼 체감온도는 더 떨어졌다.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고흥 등을 포함한 전남 10개 시·군, 거문도와 초도 등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밤 9시를 기해 광주와 담양, 곡성, 구례, 여수, 광양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했지만 13일 오후에는 해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영상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한다.

기상청은 14일 오전까지는 광주·전남 곳곳에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다 오후부터 점차 날씨가 풀려 15일부터는 최저기온과 최고기온 모두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관측했다. 기상청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4~7도 가량 더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다인 기자 kdi@

한미 연합 훈련 ‘자유의방패’ 시작

23일까지 미국 전략자산 전개

한국과 미국이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자유의 방패’ (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을 시행한다.

이번 연합연습은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연합연습으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미는 이번 연습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달라진 안보 환경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맞춤형 연습을 펼쳐 한미동맹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나리오 중에는 한미 연합군이 개전 초 북한의 전면적 도발을 방어하고 반격에 성공한 뒤 북한 지역에서 시행할 치안 유지, 행정력 복원, 대민 지원 등 ‘북한 안정화 작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연합연습은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역대 최장기간인 11일 동안 중단 없이 연속해서 진행된다.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대거 포함함으로써 2018년을 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전구(戰區)급 연합 실기동 훈련(FTX)이 사실상 부활하는 계기가 된다.

FS 연습 중 한미는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Teak Knife·티크 나이프) 등 20여 개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 연합야외기동훈련을 과거 독수리훈련(FE) 이상 수준으로 확대 실시한다.

한미는 FS 연습 기간 시행하는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전사의 방패 연합야외기동훈련’ (워리어실드 FTX·WS FTX)으로 명명했다.

이전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연합 FTX는 대대급 이하로 축소 시행됐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하반기 ‘을지자유의 방패’ (UFS) 연합연습에서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이 재개됐고 이번 FS에서 전구급 FTX를 되살리게 된다.

이와 함께 미국의 니미츠급(10만t급) 원자력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전개해 참여하는 연합항모강습단훈련과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도 FS와 연계해 이뤄지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탄도미사일 탐지 및 요격 기능이 있는 이지스 구축함,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전개도 거론된다.

한미 군 당국은 FS 연습 기간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경계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남도민은 혜택 못 받는 ‘전남사랑도민증’ ▶2면
우물안 개구리 한국야구 WBC 1R 탈락 위기 ▶18면
끝나지 않은 전쟁 - 낙동강 방어선 전투 ▶22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변호사 영입인사

저희 【법무법인 형제】는 이번에 광주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원을 퇴임하신 최인규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새로 영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준높은 법률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3.

법무법인 형제 C&K Partners
대표변호사 기 세 운

사 무 소: 광주 동구 동명로98번길 7-23 서초BD 2층~4층
대 표 전 화: 062.233.8500
업무개시일: 2023.3.2.
사무소 초청일: 2023.3.20.(월) 11:00~20:00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형제】의 대표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주요 학력 및 경력 ◇
· 전남 해남 출생, 광주 학강초, 숭의중, 조대부고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사법학과, 84학번)
· 사법시험 33회 합격,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장, 광주 남구/북구 선거관리위원장
·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 광주지법 부장판사, 순천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
· 미국 U.C. Berkeley 연수(Visiting Scholar)

법무법인 형제 대표변호사 최 인 규 올림